

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담당자 : 배영란 주무관

연락처 : 055-211-3184

경남도, 호주 방산시장 공략... 수출상담 5백만 달러 성과

- 도내 방산기업 8개사 참여... 수출상담 28건·계약기대액 1백만 달러
- 한·호주 방산협력 세미나·1:1 수출상담회로 현지 진출 가능성 모색
- 현지 방산기업 업무협약·한화 호주 생산기지 방문... 공급망 진입 기반 확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방산 중소기업의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2026 호주 방산수출사절단’이 총 5백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액과 1백만 달러 계약기대액 성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한 이번 사절단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호주 멜버른 일원에서 진행됐다. 사절단은 현지 정부 관계자 및 글로벌 바이어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수출 마케팅과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펼쳤다.

사절단은 8월 31일 멜버른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호주 방산협력 세미나’를 열고 빅토리아주 정부의 데이비드 피니(Dr. David Feeney) 방산 대사와 스콧 애들링턴(Scott Adlington) 방산담당 실장을 초청해 양국 간 방위산업 환경과 진출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1:1 기업 간 거래(B2B) 매칭 수출상담회’에서는 도내 참가기업과 현지 바이어 간 개별 상담을 진행해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향후 계약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현지 방산기업과의 협력 기반도 넓혔다. 경남테크노파크는 9월 3일에 호주 방산 전문 기업인 코버스 테크놀로지 솔루션즈(CORVUS TECHNOLOGY SOLUTION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기술 교류와 공급망 진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절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생산기지(H-ACE) 등 주요 현지 방산 시설을 방문해 현지 생산체계와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도내 기업의 글로벌 방산 공급망 진입 가능성을 모색했다.

최근 국방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된 호주 등 오세아니아 시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k-방산 기업의 유망 진출지로 꼽힌다.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사후 바이어 관리와 후속 상담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태국·튀르키예 등 주요 방산 수요국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해외 마케팅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절단 파견은 도내 방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서 실질적인 경쟁력과 네트워크를 확보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방위산업을 경남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도내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제통상과 배영란 주무관(055-211-31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